

## 성경 고전어 문법용어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김현권\*

### 들어가는 말

이 고전어 문법용어사전은 “복합학 분야 연구문헌의 지식구조 목록 구축”이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부제는 “고전 히브리어, 아람어와 코이네 헬라어 디지털 문법용어집 및 디지털 사전”이다.<sup>1)</sup>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구축한 사전으로서 고전어 가운데서도 특히 성서와 직접 관련 있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의 문법용어 사전이다. 헬라어는 인도유럽어에 속하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셈어에 속한다. 언어의 계통과 구조가 다른 만큼 문법체계도 다르고, 문법을 설명하는 메타언어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sup>2)</sup> 더욱이 히브리어의 역사 가운데서도 고전기의 히브리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헬라어도 코이네 헬라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기적 한정과 사회언어학적 지위를 부여하여 기술하는 언어의 범위를 한정한다. 한편 아람어도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하게 시기적, 사회언어학적 한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서와 밀접한 세 언어의 문법용어를 하나의 사전 내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흔히 문법전통이 다르면 문법용어도 서로 달라지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불어불문학과

- 1) 이 논문의 작성 과정에 김정우 교수님과 이윤정 박사님의 토론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권성달, 박영대 두 교수님도 사전과 관련한 조언을 주셨다.
- 2) 예컨대 Lepschy(1994)는 중국, 인디아, 근동(이집트, 수메르, 아카드), 히브리, 아람문법 전통을 잘 보여준다.

므로 기술하는 용어의 준거나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동일한 문법현상을 다른 용어로 기술할 가능성도 있고, 동일한 용어로 다른 문법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준거가 되는 일반언어학적 용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또한 이 사전의 독자층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역시 용어의 선별이 결정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법용어 사전에 대해 1) 전문용어사전으로서 사전학적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2) 사전편찬의 사전(事前) 준비작업으로서 갖추어야 일반적 작업이 선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3) 거시구조의 구성과 표제어 선정 기준과 절차, 4) 미시구조의 설계, 정의, 사례, 주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 사전이 전문용어사전으로서 가진 특징을 분석하고, 미비점 보완을 위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 1. 이 사전의 주요 특징

이 사전에 대한 결과보고서(2017, 서문, 3p.)에 주요 특징을 다섯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경에서 매우 긴밀하게 사용되는 히브리어(및 아람어)와 헬라어를 공부할 때 유용하다. 둘째, 성경 주석과 언어학 지식이 접목되어 일반언어학과 한국어 후속 연구에 유익하다. 셋째, 각 용어에 부합하는 예문을 들고, 성경 구절, 원문, 번역, 설명을 제공하여 문법지식과 주해를 연결한다. 넷째, 문법용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제시한다. 즉 상하위어, 동위어, 대립어, 관련어, 관련 표제어 등을 제시한다. 다섯째,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주요 참고서지를 제공한다.

첫째 특징은 이 사전의 교육적 용도가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자면 교육 텍스트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사전의 주 이용자들이 누구인지와 관련된다. 여기에 부응해서 표제어 선정과 관련된 거시구조 구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는

874개의 문법용어를 신고 있다. 둘째 지적인 특징은 성서언어의 이해와 주석에 언어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유효하고도 유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준다는 취지인데, 오늘날 성서 신학에 도입된 언어학의 적용을 암시적으로나마 보여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반언어학과 한국어 후속 연구에 유익하다고 한 말의 의미는 다소 모호하다. 이 언어들에 갖는 구조적, 유형적, 계통적 지식이 일반언어학의 이해에 기여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한국어의 후속 연구에 ‘어떻게’ 유의한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셋째 특징은 미시구조를 구성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둘째 특징과 관련된다. 성서는 언어로 기록된 만큼 엄밀한 언어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서의 언어의 범주 내에서 서로 연관성을 찾아 그 구조적 관계를 해명해야 한다. 주해는 언어적 의미와 해석에 기반하여 성서적 의미작용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의 준거를 이 사전이 제공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특징은 표제용어들 간의 의미 관계나 개념 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문용어들은 지식개념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거시구조를 작성할 때 맨 먼저 착수해야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용어들의 동의(유의) 관계가 빠져 있고, ‘관련어’와 ‘참고어’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다. 이 작업은 개별 기술자가 작성하기보다는 표제어 전체를 대상으로 개념위계도를 그려서 그 관계와 지위를 정확히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용어를 정의할 때 주로 논리적 정의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상하위어를 용어의 정의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최근류(最近類)와 종차(種差)를 이용하여 정의하자면 개념 분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의 특징은 각 표제어 기술에 참고했거나 관련되는 주요 서지를 제공한 것인데, 요즈음의 사전학적 기술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고서지의 성질과 범위를 잘 한정하고, 기술된 표제어에 대한 정확하고도 적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의 문헌을 선별하여 넣는 것만 해도 큰 작업이다.

이러한 사전의 특징은 다른 사전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속성으로서 이러한 특성과 속성은 거시구조와 미시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전의 특징이 잘 부각된다. 그러므로 이 특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 2. 거시구조 구축과 구성

### 2.1. 거시구조

현재 이 사전에서는 표제어로 문법용어를 874개 선정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기술은 명확한 것이 없고, 단지 준거로 삼은 것은 이들 고전어의 주요참조문법서들이다. 특히 이 성서 고전어 문법사전은 용어가 다양하고, 변형 확장된 용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양 근대어의 전통문법은 디오니시오스 트락스(Dionysios Thrax)와 아폴로니오스 디스콜로스(Apollonios Dyscolos)의 그리스어 문법, 프리스키아누스(Priscianus), 도나투스(Donatus)의 라틴어 문법에 기초하고, 인도유럽어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문법이고, 문법용어이다.<sup>3)</sup> 그러나 언어구조가 인도유럽어와 다른 셈어를 기술할 때는 다른 문법용어가 사용되는데, 아랍에는 벌써 8세기 이후에 문법가들이 출현한다.<sup>4)</sup> 서로 다른 언어에 기반한 문법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불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동지방은 오랫동안 다언어 사용이 일반적이었고, 교통어(lingua franca)로서 그리스어, 아랍어, 아랍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법전통이 병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번역, 주해, 대응색인(concordance) 유형의 사전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과 20세기 기술언어학, 구조주

---

3) 트락스의 *Tekhne Grammatike*, 아폴로니오스의 *Grammatici Graeci*, 프리스키아누스의 *Institutiones Grammaticae*, 도나투스의 *Ars grammatica* 같은 저서가 대표적인 문법서이며, 서양의 대부분의 언어들의 문법서는 이들의 전통에 기반 하여 기술된 것이다. 또한 Robins(2013) chap. 2, 3 참조.

4) Lepschy(ed.)(1994), vol. II, chap. I 참조.

의 언어학, 유형론 등 최근 언어학 성과를 반영하여 수많은 언어들(이 새로이 분석, 기술되고 참조문법서들이 나오면서 일반적인 용어들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문법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문법과 언어학 용어들이 차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회언어적 상황을 이해하고 용어를 잘 선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2. 용어 코퍼스 수집과 용어 대조작성

우선 문법용어와 언어학 용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자면 각 언어의 표준적인 참조문법서(Reference grammar)의 색인, 문법/언어학 사전 등에서 수집하여 선별해야 한다.<sup>5)</sup> 이 세 성서 언어의 기술에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용어들을 언어별로 기능하면 철저히(exhaustively) 수집한다. 우선 874개의 용어가 포괄할 수 있는 이들 세 언어의 기술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이고, 용어들의 의미관계를 반영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별 기준을 정해서 선별한다. 다음으로 이 용어들을 언어별로 대조시켜 대응색인을 작성해야 한다. 용어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변이형(동의어)까지 포함시켜 모두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대응하는 일반 언어학적 용어로도 별도의 난을 만들어 작성한다. 먼저 영어로, 다음에는 한국어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어 용어의 어원이 주로 라틴어이므로 그것도 이 대응색인에 넣는다. 아래와 같은 용어 대응색인이 작성될 것이다.

### <용어 대조 색인표>

일반언어학 용어(영어)    한국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어원(라틴어)

지금은 언어학적 용어가 영어로 거의 통일되어 사용되므로 여기에 기준

5) 히브리어는 가장 기본적인 참조문법서인 GKC(게제너우스), JMK(주용/무라오카), IBHS(월커/오코너)의 색인에서 발췌한 문법용어를 기반으로 했다.

을 두고 대응시키면 간단하다. 영어 용어도 둘 이상 있으면 변이형으로 처리하거나 동의어로 처리한다. 예컨대 spirant와 fricative는 둘 다 ‘마찰음’을 가리키므로 표제어로 fricative를 선별하고, spirant를 동의어로 처리하면 된다. 한국어 용어는 아직 표준화된 것이 없어 들쭉날쭉하므로 반드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거나 확장성이 넓은 용어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용어들은 변이형으로 처리하거나 동의어로 처리한다. 예컨대 cohortative는 ‘권유형’, ‘청유형’으로 번역되는데, ‘청유형’으로 기준을 정하면, ‘권유형’은 동의어나 변이형으로 처리한다. 아니면 편의상 기존의 한 언어학 사전의 용어를 그대로 일관되게 빌려 쓸 수도 있다. 또 언어학과 인접분야의 용어가 있으면, 해당 분야에의 전문용어사전에서 사용하는 통용 용어로 번역한다. 예컨대 고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epigraphy는 ‘비문학’, ‘금석학’으로 번역되지만, 고고학사전에서는 ‘금석학’으로 사용하므로 이를 따르고, 다른 용어는 동의어로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 같은 용어가 언어에 따라 전혀 다른 문법적 개념을 지칭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영어 subjunctive mood는 ‘가정법’을 가리키고, 프랑스어 mode subjonctif는 ‘접속법’이다. 이들은 일종의 가짜 짝(faux amis)이다.<sup>6)</sup> aspect는 ‘시상’ 또는 ‘상’으로 번역되는데, tense, Aktionsart와의 관계에서 혼동이 일지 않도록 차별적으로 표제어를 정해야 한다. 특히 한 언어의 역사에서 언어적 특성이나 유형이 변할 수 있는데, 이때 기술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격(case)은 원시 히브리어에는 있었으나, 후대에 와서 어말모음이 상실되고 평준화됨으로써 격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주어’와 ‘주격’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 또 히브리어에서 ‘탈격처럼 사용되는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정확한 표현이다. 예컨대 전치사 from이 갖는 의미나 기능을 ‘탈격’과 연관지으면 안 된다.<sup>7)</sup> 이는 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6)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되었지만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단어 쌍을 가리킨다.

7)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 유형이 변한다. 라틴어의 5격이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2격으로, 근대 프랑스어에서는 격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서 어순이 확립되고, 전치사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통합적 표현 방식이 분석적 방식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제에서 인도유럽어는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형태를 이용하는 통합적인 것이었으나 조동사를 이용하는 분석적 형태가 만들어졌다.

### 2.3. 용어의 위계 및 관계 구성

용어들은 개념체계이며, 따라서 위계를 구성한다. 이 위계에서 용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개념들의 의미관계이다. 상위어, 하위어, 동위어(同位語)의 위계, 동의어(유의어), 대립어, 관련어의 의미관계가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태는 능동태, 중동태,<sup>8)</sup> 수동태의 상위어가 되고, 이들 각 태는 태의 하위어가 되며, 능동태, 중동태, 수동태는 상호간에 동위어가 된다. 격도 주격, 속격, 여격, 대격, 탈격, 호격의 상위어가 되고, 이들 격은 상호 간에 동위어가 된다. 그리고 태와 격은 문법범주라는 일반적 용어의 하위어가 된다. 언어의 위계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언어분류도 이러한 위계를 보여준다. 예컨대 역사적 발달단계에 따라 원시 썬어 > 서부 썬어 > 중부 썬어 > 서북 썬어 > 아랍어, 가나안어 >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모압어로 계통에 따른 위계를 그릴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상하위어의 관계가 분명하면 정의할 때 차상위어를 최근류(最近類)로, 이들의 차이점을 종차(種差)로 기술하면 편리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 (1) 서북 썬어: 계통적으로 원시 썬어에서 유래하는 서부 썬어군의 중부 썬어 하위 어군. 중부 썬어에 속하는 동계의 어군으로는 아랍어와 남부 썬어가 있다.
- (2) 아랍어: 계통적으로 원시 썬어에서 유래하는 서부 썬어군의 서북 썬어에 속하는 언어. 동계어로서 가나안어, 우가릿어 등이 있다.
- (3) 히브리어: 계통적으로 원시 썬어에서 유래하는 서부 썬어군의 서북 썬어에 속하는 가나안어의 하위어. 동계어로서 페니키아어, 모압어 등이 있다.

썬어 하위분류에서 계통상 공통의 기원어, 즉 원시 썬어가 있고, '아랍어'

8) middle voice는 보통 '중간태'로 번역하나 여기서 필자는 능동/수동에 맞춰 '중동태'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문법용어사전에서 인용할 때는 '중간태'로 그대로 인용하였다.

9) 그러나 논리에 기반한 계통적 분류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벤베니스트(1966), 제9장 언어의 분류 참조 사례로 참조한 썬어 분류는 Faber(1997), Rubin(2008) 참조.

의 최근류는 '서북 썸어'이다. '히브리어'는 계통상 공통의 기원어가 있고, 최근류는 '가나안어'이다. 종차를 지적하자면, 다른 동계어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을 지적하면 된다. 그리고 '원시 썸어' 항목에는 전체 썸어 하위분류 도식을 넣어주면 이 언어들의 계통적 관계와 위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들 용어의 정의에 이용된 모든 언어를 가리키는 모든 용어들, 즉 '원시 썸어', '서부 썸어', '중부 썸어'를 표제용어로 등록하여 서로 상관지어 정의해야 한다. 대어족(phylum, macrofamily), 어족(family), 어군(group)/하위 어군(subgroup), 어파(branch), 언어/개별어, 방언, 특유 지역어(idiome), 집단어(patois) 등의 언어의 언어학적 위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소 불분명하고, 언어의 분류학상의 정확한 지위가 모호한 언어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를 정확히 지정해서 정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법용어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보자.

- (1) 태= 문법범주의 일종으로서 문장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표현하는 방식
- ① 능동태= [태의 일종으로서] 행위자를 주어로 나타내는 동사의 상태
- ② 수동태= [태의 일종으로서]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을 주어로 나타내는 동사의 상태
- ③ 중동태= [태의 일종으로서] 행위자가 주어이면서 행위의 대상이 주어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의 상태

'태'가 상위어이고, 이것이 '능동태', '수동태', '중동태'의 최근류가 된다. '태의 일종으로서' 이하의 정의 기술사항이 각 태의 종차가 되어 각 태를 구별하는 문법적 특징을 기술해 준다. 따라서 기술할 문법용어들을 수집, 선별할 때 이러한 위계와 의미관계를 고려하여 반드시 대응이 되는 용어가 누락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문법범주, 태, 능동태, 수동태, 중동태는 물론이고, 정의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행위자, 대상, 주어 같은 용어들이 모두 표제용어로 등록되어 정의되어야 한다. 용어들은 관계망을 구성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조직해야 한다.

## 2.4. 동형어(homonymy) 분리

### 2.4.1. 동음어/동철어

동음어/동철어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개념이 전혀 다른 용어들이다. 전문어 사전에서 동형어 분리는 당연하다. 그것은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의미를 갖는 단의어(monosemy)이기 때문이고, 다의(polysemy)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형어로 분리하면, 두 개의 표제어로 등록해서 기술해야 한다. 아니면 용어의 번역을 바꿔 다른 용어로 쓴다. 예컨대 영어 표제어 absolute를 제시하고, 이를 '절대형'(absolute FORM)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동형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absolute는 '절대격'(absolute CASE), '절대 구문'(absolute CONSTRUCTION), '절대적 언어'(absolute LANGUAGE)를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auxiliary를 '보조어'로 번역하는데, 현재 기술한 정의를 보면 '여러 구성 성분에 덧붙여 특별한 뜻을 더해 주거나[=보조어] 발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보조음]이다. 전자, 즉 '보조어'는 단어나 형태소(morpheme)이고, 후자, 즉 '보조음'은 음성(sound)이다. 그러니까 auxiliary는 단어와 기능이 전혀 다르므로 둘로 분리하고, 완전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auxiliary verb(조동사)는 '본동사의 시제나 서법을 결정하거나 도우는 동사'로 정의하므로 앞의 보조어와 역시 다르다. 현재의 표제어들을 보면, 형태를 지시하는 용어와 의미 기능을 지시하는 용어들로 구분된다. 예컨대 absolute(절대형)은 '형태'로 정의하는데, '명사, 형용사, 수사에서 격이나 접미사 등 다른 요소가 추가되지 않으며, 다른 명사에 의존하지 않는 기본적인 형태'이다. 반면 global(전반적인)은 '일련의 행동들이나 한 범주의 모든 행동들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의미기능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번역 용어 '전반적인'이 형태를 가리키는지 의미기능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불완전하다. 또 deverbal을 '동사파생명사'로 명사로 번역하는데, 이를 deverbal noun까지 완전한 형태로 써 주는 것이 좋다. passive도 active voice, middle voice에

맞추어 passive voice로 완전히 표기한다. 이러한 작업이 분할배열(dégrouperment)이다.

#### 2.4.2. 분야에 따른 동형어

분야에 따른 동형어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나 영역이 달라서 전혀 다른 의미나 개념을 갖는 경우이다. 동일 용어가 서로 다른 분야에 사용하여 전혀 다른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면 다른 표제어로 분리시킨다. 예컨대 double articulation은 음성음운론에서는 ‘중복발음’이지만, 일반언어학 분야에서는 ‘이중분절’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개의 별도의 표제어로 분리해서 기술해야 한다. 현재의 사전에서는 전자의 용어만이 등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cognate도 ‘동일한 어족에서 기원하는 낱말이나 언어’로 되어 있고 번역 표제어는 ‘동족어’이다. 하지만 언어 차원에서 동계어(同系語), 낱말 차원에서는 동원어(同源語)로 구별하는 것이 좋다. 동족어(同族語)는 흔히 통사론에서 동족 목적어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목적어가 동사와 같은 어원이거나 동일 의미족에 속하는 단어를 가리킨다. ‘잠을 자다, to live a good life’에서 명사 ‘잠, life’가 동족 목적어이다.

#### 2.5.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통합 또는 분리

이러한 거시구조의 구성은 사전편찬자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전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더욱 지식표상에 유리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부표제어로 설정하지 않으려면 모든 용어를 표제어로만 등재하고, 부표제어로 거시구조를 짜려면, 상위 개념이나 용어는 주표제어로 삼고, 하위 개념이나 용어는 부표제어로 배치하여 기술한다. 후자의 장점은 하위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별도의 위미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베트, 원인의 베트, 동반의 베트, 본질의 베트, 수단의 베트, 가격의 베트’로 모두 동일하게 표제어의 지위로 등재하여 기술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베트'의 용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베트'란 표제어에서 이들을 모두 부표제어로 재배열(regroupement)하여 그 용법을 기술하면 더욱 간단하고, 이들의 상호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베트1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 베트2 전치사
- 원인의 베트
- 동반의 베트
- 본질의 베트
- 수단의 베트
- 가격의 베트

'베트'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배열할 가능성이 있는 표제어들이 많다. '대격'도 '내적 목적어, 한계, 측정 단위, 움직임, 장소, 결과, 시간의 대격'으로 분할 배열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대격'의 각 용법들로 보인다. '여격'도 '이익의 여격, 불이익의 여격, 감성의 여격'만이 표제용어로 등재되고, 더욱 기본적으로 중요한 여격의 용법들, 예컨대 '간접 목적어, 도착지, 수령인, 소유, 술어, 수단, 태도, 원인, 재료' 등의 여격은 '여격' 항목에 나오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고, 표제어로도 등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표제어 등재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여기서도 정해서 주표제어나 부표제어로 등재하거나 '여격'이란 표제용어에서 기술하거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다계위' 항목도 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사전에서는 기능이나 용법이 다르면 이들을 모두 분할하여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는데, 재배열할 만한 여지가 있는 표제어들이 꽤 많다. 주표제어로 분할 배열할 것인지 부표제어로 재배열하여 묶을 것인지는 사전편찬자의 의도와 결정에 달린 문제이다.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2.6. 표제어의 표기

표제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시되어 있고, 표제어의 순서는 영어의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만일 영어 용어를 모르고 한국어 용어만을 가지고 해당 문법사항을 찾아보려면 찾기가 매우 어렵다. 언어분석과 기술에서 사용되는 영어 용어는 대부분 통일되어 있고, 용어의 표기체계(약어나 약호)도 표준화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각 언어의 구조는 서로 다르고, 독자적인 문법전통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들도 있다. 이들은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국어로 된 문법 용어와 언어학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표제어를 표기하는 원칙도 정해야 한다. 지금 사전의 표제어는 좀 들쭉날쭉하다. 예컨대 ‘활음조의 강다게쉬’, ‘활음조의 강잡’, ‘dagesh euphonicum’, ‘euphony dagesh’의 네 개가 표제어이다. 한국어와 영어로만 표기하여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다. 라틴어 용어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의 한국어 표제어도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고, 다른 한 용어는 동의어나 변이형으로 처리한다. 또한 ‘끝음절(終音節)’을 보면 한글표기와 한자어 표기가 상이하다. 이 경우도 한자어는 동의어로 처리하고, 표제어에는 없앤다. ‘걸려 있는’이란 표제어는 ‘고리형’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사도 ‘명령의 동사, 지각 동사, 보는 동사(시각동사), 충만, 결핍의 동사, 착탈 동사’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동사를 의미부류로 분류하면 굉장히 많은데, 일부 부류의 동사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어 그 선정 기준 역시 정해야 한다.

표제어는 반드시 하나만 제시해야 한다. 하나의 용어에 대해 영어, 한국어, 경우에 따라서 원어가 반드시 상호 참조되게 거시구조를 설계한다. 하나의 표준적인 용어만 미시구조를 기술하고, 나머지는 표제어로만 등록하고, 참조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예컨대 ‘통사론’으로 표준적인 표제어로 정하면, ‘구문론’은 동의어가 되고, 표제어로 등록만 하고 미시구조는

기술하지 않고 ‘동사론’을 참조하라는 참조 표시만 한다.

구문론 → 통사론

표제어는 변이형이 있게 마련이므로 변이형은 동의어로 처리하여 참조하게 한다. 사전의 부록에는 반드시 용어 대응색인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표제어는 용어의 성질에 따라 2항, 3항으로 구성된다. 한국어-영어 나 한국어-영어-원어이다. 예컨대 표제어 귀결절(결과절) apodosis는 결과절-apodosis로만 제시하고, ‘귀결절’은 동의어로 처리한다.

결과절 apodosis, [동의어] 귀결절

수식어 attribute, [동의어] attributive, ad-nominal

프랑스어 French, [동의어] français(원어), 불어

길르앗 방언 Gileadite, [동의어] Gilaad (dialect)

또한 표제어는 일관성이 있고, 동형어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능동태, 중간태’는 active voice, middle voice로 표기했는데, ‘수동태’는 passive로만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격의 경우, 표제항에 영어 dative를 쓰지 않고 라틴어 dativus를 사용하는데,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 영어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아니면 영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미시구조

미시구조는 앞에서 이 사전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대강 제시되었다. 즉 각 용어에 부합하는 예문, 성경 구절, 원문, 번역, 설명을 제공하고, 문법용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주요 참고

서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미시구조에 포함된 사항은 정의이다. 그리고 영어 용어에 대한 어원(라틴어) 정보도 들어 있다. 그리고 용어의 용법을 설명하고, 성경 예문으로 히브리어와 헬리아어를 제시한다. 이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자.

### 3.1. 정의

사실상 미시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제어로 제시된 용어에 대한 정의(定義)이다. 이 정의에 대한 기술 원칙이 이 사전에는 빠져 있다. 정의는 개념을 간단명료하게 잘 표현하여 독자들이 찾는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정의가 모호하거나 복잡하면 독자들은 머릿속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된다.

용어는 대개 네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논리적 정의로서 최근류와 종차에 의한 정의이다. 이는  $X = Y(\text{최근류}) + Z(\text{종차})$ 로 형식화할 수 있다. 둘째는 형태론적 정의로서, 형태론적 관계를 이용하는 정의인데, 전문용어의 정의에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완료와 미완료상이나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 같은 용어는 이 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미완료상은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이고, 불완전동사는 ‘동사의 활용형이 **완전하지 못한**’ 불구동사이다. 셋째, 참조적(의미론적) 정의는 의미관계(상하위, 유의/대립, 긍정/부정)를 이용하여 정의하는 방식이다. 명사파생동사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동사파생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처럼 유의어를 이용하여 정의하는 방식이 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는 속성이나 성질, 기능을 지적하는 정의이고, 외연적 정의는 동일한 속성을 지닌 개체들을 집단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정의이다. ‘빈번상’은 “어떤 행동을 빈번히 반복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의 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내포적 정의이고, 로망스어(Romance)는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카탈루냐어 등이 속하는 어군’ 같은 정의가 외연적 정의이다.

용어들은 성질이 다르고, 위계가 다르고, 용법과 기능이 다르므로 거기에 맞게 정의를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어들을 동질적인 범주로 분류해서 상호 관련지어 정의해야 한다. 예컨대 태를 정의할 때는 그 하위어인 능동태, 수동태, 중동태의 정의 패턴과 거기에 사용되는 정의어가 거의 동일해야 하고, 서로 관련지어 정의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태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머리에 그릴 수 있다. 용어의 성질이 다르므로 거기에 표상되는 지식의 내용도 당연히 다르고, 이를 구조화시키고 일정한 패턴으로 표상해야 한다. 표제용어의 지식표상에 필수적으로 들어 갈 기본적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도 위계를 지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사전이 전산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술된 사전의 미시구조 내용을 이용하여 좀 더 형식화하여 정의해 보자.

문법용어의 정의에는 이 용어가 지칭하는 범주, 기능, 용법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표상되어야 한다. 용법이 복잡하면,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간략히 설명하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법부터 먼저 제시하고, 파생 용법, 특수 용법의 차례로 제시한다. 그럼 몇몇 표제용어의 정의를 분석적으로 제시해 보자.

탈격 ablative

[문법]=[지식분야]

◆ 방향, 동작, 행동의 출발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종차] 격으로[=최근류], 재료, 원인, 비교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내포적 정의]

▶ 주격, 속격, 여격, 대격, 호격 등과 같은 명사의 격 중 하나이다.[=외연적 정의]

[용법]

출발점[=기본 용법] : 예문 제시

재료[=파생 용법] : 예문 제시

원인[=파생 용법] : 예문 제시

비교[=파생 용법] : 예문 제시

[상위어] + 격(case)

[동위어] ≙ 주격, 소유격, 여격, 대격, 호격

수식어 attribute

[문법]=[지식분야]

◆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을 수식하는 요소나 성분.[=내포적 정의]

▶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어(ad-nominal)와 동일한 개념이다.[=참조적 정의]

[히]

[용법]

[기본용법]

히브리어에서 수식어로는 명사, 분사, 형용사가 사용된다. 명사는 일반적으로 속격 형태로 다른 명사를 수식한다. 분사는 준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지만, 술어로 사용되면 시간 형태를 지닌다(JMK §121a). 형용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예문]

명사+명사 :

명사+분사 :

명사+형용사 :

다음으로 언어를 기술하는 표제어를 예로 들어 보자. 언어에 대한 지식 정보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통시적 지식으로 어족/어군, 시대, 지리분포 및 방언이 있고, 공시적 지식으로 통사론적, 형태론적 유형 및 구조적 특성, 문자/표기체계,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지식으로 사회언어학적 기능1에 국어/공용어, 문어, 상위기능/하위기능, 사용자 수가 포함된다. 이 사전은 성서/종교 관련 지식을 반드시 표상해야 하므로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성서/종교 관련 지식이나 정보, 특기사항이 표상되어야 한다. 그럼 사전의 표제어로 사용된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구조화하여 제시해 보자.

프랑스어 French

[언어]

◆ 대중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로망스어에 속하는 언어[계통]로서 현재 프랑스의 국어이다.

▶ 모나코, 벨기에의 왈로니 지방, 스위스 로망드 및 캐나다의 퀘벡,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에서[지리분포] 공용어나 국어로 사용되는 언어이자 유엔의 사무어이기도 하다[사회언어학적기능1]. 사용 인구는 약 1.5억-2억 명이다.[사용 인구].  
≡français[동의어, 원어]

이 표제어에는 프랑스어의 유형적 특성이나 구조적 특성을 특별히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프랑스어와 관련된 언어/언어학 사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전이 사회언어학적 기능2에 해당하는 성서/종교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특별히 제공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제어로 굳이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 게즈어 Ge'ez

[언어]

◆ 고대 남부 셈어에 속하는 언어로서[계통] 북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에서 [지리분포] 발달한 악숨 왕국과 에티오피아 왕국의 공용어였으나[사회언어학적 기능1], 4-10세기경 소멸되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교통어는 암하라어이다[사회언어학적 기능1].

▶ 게즈어는 5세기경부터 성서나 전례서가 이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도 기독교 정교회와 교회의 언어로 사용된다[사회언어학적기능2].

#### 길르앗 방언 Gileadite

[언어]

◆ 사사 시대(기원전 6-8세기)에 길르앗 지역[지리분포]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인들이[화자/사용자] 사용하던 히브리어의 방언[계통].

▶ 사사 시대에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과 서쪽 에브라임 산지에 서로 다른 방언이 사용되었다[방언분포]. 두 방언의 차이는 'sh'의 발음 차이로 길르앗 방언에는 이 발음이 있었으나 에브라임 방언에는 없었다[방언특징]. 에브라임 자손과 입다의 전쟁에서 에브라임 자손은 '십볼레트'(נִּשְׁבֹּלֶט, 물줄기)를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레트'(נִּשְׁבֹּלֶט, 이삭)로 발음하여 42,000명이나 죽었다(참, 사 12:4-8)[사회언어학적기능1].

어학적기능2

≡Gilaad dialect[동이어]

‘게즈어’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에티오피아에서 사용되던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언어로서 표제어로 선정되어 등재되었고, ‘길르앗 방언’은 ‘히브리어’ 방언으로서 성서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역시 표제어로 선정되었다. ‘게즈어’의 설명에 ‘암하라어’가 언급되었으므로 ‘암하라어’도 표제어로 등재해야 한다. 성서에 근거를 갖는 표제어는 반드시 관련되거나 참조된 성서의 부분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길르앗 방언’은 <사사기 12장 4-8절>이 관련 근거로 제시된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 방언을 정의에서 언급하므로 표제어로 ‘히브리어’를 기술할 때 방언에서 ‘길르앗 방언’을 지적하여 상호 참조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히브리어’에 대한 정의를 보거나 미시구조의 기술에서는 ‘길르앗 방언’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볼 수 없다.

히브리어 Hebrew

아프로아시아어족에 속하는 서북 셈어에 속하며[계통],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살던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화자]이 사용한 가나안의 방언[지리분포].

‘히브리어’는 시대와 지역, 화자,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따라 정의에 좀 더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표제어이다. 고대 및 고전 (성서) 히브리어, 고전 후기(성서) 히브리어, 중기 (랍비)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근대 (이스라엘) 히브리어 등으로 자세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sup>10)</sup> 위의 정의에 지적한 ‘히브리어’는 이 다양한 시대적 구분에서 어느 변이체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사전 자체 내에서는 항상 지식, 정보 관련 사항들이 서로 연관된 망을 구성하므로,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는 관련된 표제어들을 함께 묶어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이어, 대립어, 상하동위어, 관련어 등을 함께 묶어 한 사람의 기술자가 정의하면, 정의가 통제되어 들쭉날쭉하게

10) McCarter(1994), Hebrew 참조.

기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을 집필한 후에 사전을 교열할 때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 이들 관련되는 표제어들을 같이 묶어 한꺼번에 같이 교열을 보는 것이 편리하고 바람직하다.

### 3.2. 용법 및 예문

표제용어가 지시하는 정의를 보고, 정의에 제시된 용법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용법과 예문이 잘 대응되게 제시한다. 용법은 항상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법부터 제시하고, 다음으로 파생 용법, 특수 용법의 순서로 기술한다. 예문들은 해당 용법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문을 선별해서 제시하고, 독자들이 이 예문을 통해 표제용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문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예문의 수가 많으면 부적절한 정보가 들어가거나 잉여적인 것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문은 2-3개는 제시한다. 어떤 경우에 예문이 또한 너무 짧아 맥락 정보가 없으면 예문이 잘 이해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동일한 용법을 보여주는 예문의 제시는 불필요하다. 예컨대 상호 대명사에 나오는 사 6:29와 출16:15는 동일한 예문이므로 하나를 삭제한다.

또 지적할 사항은 이 용어사전이 일반언어학과 한국어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한국어 연구자들 가운데서 히브리어 문자와 헬라어 문자로 기록된 성경 예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예문 밑에 로마자로 병기하고, 그 예문에 언어적 직역을 다는 방법이 있다.<sup>11)</sup> 이 직역은 원문과 번역문의 형태소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대조함으로써 해당 용법을 보이는 예문의 문법적, 언어적 이해를 크게 돕는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만 병기하고, 한국어 번역문의 표제항 관련 부분에만 밑줄을 그었는

11) Leipzig glossing Rules이 그 예이다. 단어 대 단어, 형태소 대 형태소로 1:1로 대응시켜 축자적으로 직역하는 메타언어적 방법이다.

데, 이는 잘못이다. 실제로 표제어의 문법용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어에 해당하는 단어나 구를 밑줄로 그어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요 7:39

τούτο δὲ εἶπεν περὶ τοῦ πνεύματος

touto de eipen peri tou Pneumatos [로마자 전사]

this-Acc moreover he said concerning the Spirit [문법주해적역]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성령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었다.[해석]

롬1:17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dikaioyne gar theou [로마자 전사]

rightousness indeed God-Gen [문법주해적역]

하나님의 의가 [해석]

이런 방식으로 예문을 제시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문법적 분석을 정확히 하고, 정확한 해석과 번역을 기할 수 있다. 문법용어 사전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예문 제시는 매우 유익하고 교육적이다. 마지막으로 성서 예문은 기존의 한국어 번역본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문법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소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택했다.<sup>12)</sup> 다른 번역본을 이용할 경우 의역으로 인해 문법사항과 그 용어에 대한 지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전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문법용어 사전인데, 표제어의 문법용어가 세 언어에 모두 적용될 수도 있고, 두 언어, 한 언어만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람어에 대한 용법이나 예문은 별로 발견할 수

---

12) Larson(1998:18)은 번역의 척도를 독자적 직역, 직역, 수정 직역, 혼합 번역, 유사 의역, 의역, 부당한 의역으로 나눈다. 목적에 맞게 번역도 이들 척도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주로 히브리어와 헬리어에 대한 문법적 기술이 많다. 두 언어의 문법기술에 해당하는 용어이면 반드시 두 언어의 용법과 예문을 설명하고, 그 유사점과 차이를 기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언어의 계통과 구조가 상당히 다르므로 대조언어학적 분석을 하는 것처럼 제시하면 유익할 것이다.<sup>13)</sup>

### 3.3. 의미관계

용어의 의미관계는 상위어, 하위어, 동위어, 대립어, 관련어인데, 여기에 동의어(변이형)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는 사전에 구축한 용어 색인에 따른 용어나 개념위계체계(ontology)에 따라 제시한다. 동의어는 별개의 메타기호 ≡로 표시한다. 관련어와 참조어의 경계는 불분명한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분명히 정의해서 구별되게 표시해야 한다. 기술자에 따라 임의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은 의미관계이다.

현재의 이 용어사전 기술에서는 이 의미관계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기술자에 따라 일치하지 않고 서로 어긋나거나 상치된 것들도 있다. 예컨대 ‘최상급’의 항목에는 동위어로 ‘비교급’이 제시되어 있으나 ‘비교급’의 항목에는 ‘최상급’이 동위어로 제시되지 않고, 두 항목에는 모두 상위어로 ‘급수’와 동위어로 ‘원급’이 빠져 있다. ‘복수/단수’의 항목에서도 동위어의 교차 표시가 빠져 있다. ‘시리아어’에는 상위어로 ‘아람어’가 있으나 ‘아람어’에는 하위어로 ‘시리아어’가 빠져 있다. 동위어들끼리의 의미관계 표시도 많이 누락되어 있다. 이 사전에는 ‘어근’, ‘어간’은 있으나 ‘어미’(ending, desinence)란 용어가 빠져 있다. 세 용어가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어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어근’의 상위어로 ‘곡용’과 ‘활용’, ‘굴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틀린다. 굴절어의 경우 단어를 분석하면 ‘어근, 어간, 어미’로 분석된다. 동사의 어미변화를 가리키는 ‘활용’과 명사 부류의 어미변화를 가리키는 ‘곡

13) 히브리어 성경과 헬리어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 번역과 해석의 관점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다.

용'이 '굴절'의 하위어이다. 세 가지 태의 경우도 각 표제어에서 의미관계를 기술한 것이 서로 다 다르다. 세 가지 태는 모두 등위어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용법에 따라 대응하는 의미관계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제어

능동태	[대립어] 중간태, 수동태
중간태	[등위어] 능동태 <sup>14)</sup> [대립어] 수동태
수동태	[대립어] 능동태 [등위어] 중간태

그 외 A항에는 대립어/관련어/참조어로 B가 제시되어 있으나 B에는 A가 대립어/관련어/참조어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의미관계가 미기술된 표제어도 많다. 모두 보완이 필요한 작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의어는 참조어 →로 표시하고, 미시구조는 기술하지 않는다. '결과절'이란 표제어에서 미시구조를 기술하고, 동의어로 '귀결절'을 제시했다면, '귀결절'은 표제어로 제시만하고, '결과절'을 참조하라는 지시만 하면 간단하다.

결과절 ≡귀결절 [동의어]  
 귀결절 → 결과절

그래서 사전(事前)에 기술할 표제어들의 상호관계를 개념체계에 따라 일관되게 기술하여 두었다가 이를 가지고 기술된 항목들을 조사하면서 교열하고 추가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빠짐없이 표제어를 상호 관련지어 기술할 수 있다.

### 3.4. 용어의 어원

---

14) 중동태의 등위어로 '중간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표기인 듯하다.

미시구조에서 간단한 정의에 뒤이어 그 문법용어의 어원을 지적하는데, 주로 라틴어나 헬라어의 형태와 의미를 제시한다. 예컨대 “영어 preposition 은 라틴어에서 ‘앞에 두다’(to place in front of)라는 뜻을 가진 단어 (praeponere)에서 나왔다.”고 그 어원을 설명한다. 또 “연속 접속을 뜻하는 영어 polysyndeton은 헬라어에서 ‘많다’(poly)와 ‘뭉다’(syndetos)를 합성한 단어(polysyndeton)에서 나온 문법용어이다.” 또 “의미론이란 영어 semantics는 헬라어에서 ‘의미심장한’(significant)이란 단어 세만티코스(semantikos)에서 나왔다(동사형 semainein, to show, signify).”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제시한 설명이 다소 길기 때문에 이를 보다 간략히 제시하면 편리하다.

preposition < Lat. praeponere(앞에 두다)

polysyndeton < Gk. polysyndeton(poly‘많은’+syndetos‘뭉다’)

semantics < Gk. semantikos(< Gk. semainein‘보여주다, 의미하다’)

이 문법용어의 어원 설명에도 어원을 헬라어 문자로 적었는데<sup>15)</sup>, 이는 불필요한 사항이다. 모두 로마자 알파벳으로 전사해주면 독자들에게 편리하다. 그것은 이 어원 지식이 용어에 대한 이차적인 지식이므로 이로 인해 문법용어의 이해가 방해받아서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의미에 또 다시 영어를 부연해서 추가하는 것은 사전의 지면만 늘리는 결과이다. 최소한의 지면에 지식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사전이다.

### 3.5. 참고사항

문법 설명에 표제어와 관련된 주요 논란이나 이슈, 이론적인 차이나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전은 어디까

15) 위에 인용한 설명에 나오는 헬라어는 모두 로마자로 전사하였다.

지나 교육적 목적이 있고, 준거가 되는 텍스트이므로 확인되거나 검증된 정통적인 통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견이 있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기술 항목으로 정하여 간략하게 유익한 지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은 문법책이나 언어학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론적 선택이나 주장은 논문에서 펴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문법용어 사전에서 논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고,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논쟁이나 이론의 여지가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만으로도 족하다.

### 3.6. 참고서지

현재의 미시기술에서 어떤 표제어에는 참고서지가 있고, 어떤 표제어에는 참고서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미시구조의 문법설명 내에 참고서지를 제시한 경우도 있고, 별도의 난으로 구분하여 참고문헌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참고문헌이 이 두 곳에 중복된 경우도 있고, 문법설명에는 있으나 뒤에 제시한 참고문헌에 빠진 경우도 있다. 어떤 준거나 기준에서 참고서지를 제시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수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표제어는 많고(예,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7개), 어떤 표제용어는 하나만 제시되어 있고(예, **카세프, 코프**) 어떤 표제어는 한국어 참고문헌만 제시된 경우(예, **의미론** 7개)도 있다.

참고서지는 기술한 표제어와 직접 관련 있는 핵심적인 참조문법, 문법 및 언어학 사전, 저서, 논문을 국내외순으로 제시한다. 지나치게 많은 참고문헌은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수를 대개 제한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법 설명이나 참고사항에 이용하거나 참조, 인용한 저서나 논문, 용어사전, 언어학사전, 주해서가 있으면, 간략히 저자와 연도만 표기한다. 그리고 이 용어사전에 참고한 모든 참고문헌을 전체로 모아 한꺼번에 그 서지 사항을 보여준다.

#### 4. 미시구조 기술의 분량

표제어의 배열이나 표제어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표제어의 미시구조 기술의 분량도 지나치게 짧거나 지나치게 길면 안 된다. 적절하고 적절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어 최소한 표제용어에 대한 언어적, 언어학적 이해가 될 수 있고, 참조한 독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만 간단히 정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문법용어 사전이 언어 및 언어학/문법 백과사전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길어도 안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서지에 관련 언어 및 언어학 백과사전이나 또는 문법 백과사전을 참조하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기술 분량도 사전에 합의하여 대강 그 한계를 지적해 두면 편리하다. 예컨대 언어를 가리키는 항목은 다소 길게 기술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들어갈 내용의 구조를 패턴화해두면 분량도 조절된다. 용어의 정의와 예로써 충분한 경우는 몇 줄로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전은 어디까지나 사전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만큼 문법서와 구별해야 하고, 문법용어 사전인 만큼 언어학 백과사전과는 차별이 되게 적정 분량을 조절한다.

#### 5. 기호 및 약호체계 및 메타언어체계

사전에는 사전 기술에 사용된 기호 작성과 설명이 자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복잡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메타언어로 메타언어와 약어를 표시한다. 이때에도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피한다. 이 사전에서는 모음과 자음을 약호로 **모**, **자**로 표시하는데, 이 두 가지 용어만 유독 약자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참고’와 ‘비고’, ‘→(을 보라)’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정의해 주어야 혼란이 없다. 아울러 사전의 각종 메타언어체계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고, 상호참조(cross-reference)도 표시하여 독자들에게 최대한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배려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그리스어, 아람어, 헬라어 원어에 언어적 주해 및 직역을 다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어와 용어들도 빠짐없이 찾아 별도로 해설해 주어야 한다.

## 나가는 말

이 <고전 히브리어 및 아람어와 코이네 헬라어 문법용어사전>은 김정우 교수의 주도 하에 원문마을팀(5명의 신구약학자들)이 토대연구 연구비를 지원받아 3년(2014년 9월-2016년 8월)에 걸쳐 편찬한 사전이다. 애당초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의 문법용어 1,400개의 용어를 선정하였으나 여기에서는 874개만을 기술하였다. 주로 이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참조문법서인 GKC(게제니우스), JMK(주옹/무라오까), IBHS(윌커/오코너)의 색인에서 발췌한 문법용어를 기반으로 하고, H. Bussman,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1996), J. Murphy, *Pocket Dictionary for the Biblical Hebrew* (2003) 등을 참조했다. 헬라어와 아람어 문법용어는 충분하게 많은 용어들은 차후 보완하는 계획을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이 사전은 문법용어사전으로서 전문용어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sup>16)</sup> 또한 성서와 직접 관계가 있는 3개 어를 대상으로 편찬되어 있으므로 사전학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가 있는 사전이다. 그런 만큼 사전을 구상하고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설계하고, 기술하는 연구작업과 편찬하는 실천적인 작업 역시 만만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에는 표준적인 일반언어학사전이나 한국어 문법사전이 아직 없어서 용어의 정의와 번역에 상당히 큰 애로가 있다. 특히나 언어학적 용어나 문법용어가 그리스로마 문법전통에 입각하여

16) 일반언어학적인 용어들도 다수 있으나 최소한으로 한정하였다.

만든 것이고,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법은 셈어 전통에 입각한 것이어서 하나의 사전에서 통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설계도 매우 독특한 면이 있다. 현재 세계의 언어들에 기술하기 위한 메타언어도 있으나 유형론적 시각에서 이들을 대조하여 분석 기술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조언어학적 시각과 유형론적 시각을 가지고, 비교준거(tertium comparationis)를 가지고 비교, 대응해서 분석하여야 이들 언어의 구조나 문법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언어구조도 다르고, 계통도 다르고, 문법 연구의 전통도 다른데, 그러한 언어기술의 준거나 메타기술체계 없이 기술한다면 자칫 독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우려도 없지 않다. 성서의 언어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분석 기술하고, 이에 바탕하여 해석하고 주해하는 작업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성서 언어의 문법용어 사전이다. 그러 만큼 연구자들의 책임과 사명의 식도 이 사전의 성패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사전 연구의 역사도 일천하고, 사전편찬도 전문학자들과의 협업이 많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전은 헬라어와 아람어 문법용어들이 더 추가되고, 현재의 기술이 계속 보완되고 개정된다면, 언어학과 신학 교육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문법용어, 전문용어, 사전학, 고전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 성서

### <Key words>

grammatical terms, terminology, lexicography, classical Hebrew, Aramaic, Greek, Bible

\* 접수일 2017년 9월 17일, 수정일 2017년 10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 참고문헌

<사전>

김정우 외, 『고전 히브리어 및 아람어와 코이네 헬라이어 문법용어 사전』, 한국  
신학정보연구원, 2017.

이정민/배영남, 『언어학사전』, 한신문화사(1982), 박영사(1987, 개정증보  
1993).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사전』, 소통, 2012.

한글학회, 『국어학사전』, 1995.

Aarts, B. et al.,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Grammar*. 2<sup>nd</sup> ed., Oxford: Oxford  
Univ. Press, 2014.

Asher, R. E. & Simpson, J. M. Y.(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vols. 10, 1994.

Bright, W.(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s. 4, Oxford Univ.  
Press, 1992.

Bussmann, H.,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tr. by G. P.  
Trauth & K. Kazzazi), Routledge, 1996,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Kröner. 1990).

Collinge, N. E.(ed.), *An Encyclopedia of Language*, Routledge, 1990.

Dubois, J. et al.,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et des sciences du langage*, Larousse,  
1994.

Guilbert, Louis,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 vols. 7, Grammaire et  
Linguistique, Larousse, 1970-1978.

Malmkjaer, K.(ed.), *The Linguistics Encyclopedia*, Routledge, 1991.

Mounin, G.(ed.), *Dictionnaire de la linguistique*, PUF, 1974.

Pottier, B.(ed.), *Le Langage. Les dictionnaires du savoir moderne*, Retz, 1973.

Pougeoise, M.(ed.), *Dictionnaire didac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Grammaire,  
Linguistique, Rhétorique, Narratologie, Expression & Stylistique*, A. Colin,  
1996.

Stammerjohann, H. et al.(eds), *Lexicon Grammaticorum : Who's who in the  
History of World Linguistics*, Niemeyer, 1996/2009.

Trask, R. L.(ed.), *A Dictionary of Grammatical Terms in Linguistics*, Routledge,

1992.

<논저>

김현권,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특성과 전문용어사전편찬,” 「전문용어연구」 2, (2001).

김현권, “전문용어사전의 정의와 지식표상,” 「한국사전학」, 22 (2013), 32-71.

김현권, “동사 의미와 정의와 사전기술,” 「한국사전학」, 25 (2015), 94-130.

김현권,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사전》거시구조 기술의 문제,” 「언어학」 5 (2016), 145-172.

김현권, “《라루스 프랑스어 대사전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에 대한 소고,” 세계의 언어사전, 「새국어생활」 봄 (2016), 151-171.

페르디낭 드 소쉬르, 김현권 옮김, 『일반언어학 제3차 강의: 에밀 콩스탕탱의 노트』 (출간 예정).

에밀 베베니스트, 『일반언어학의 여러 문제 1』, 김현권 옮김, 지만지, (1966), 2012.

Faber, A., *Genetic subgrouping of the semitic languages*, in R. Hetzron(ed.)(1997), 3-15.

Hetzron, R.(ed.), *The Semitic Languages*, Routledge, 2013.

Larson, M. L.,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Oxford Univ. Press, 1998.(2<sup>nd</sup> ed.)

Max Plank Institute, “Leipzig glossing rules,” pdf.

Lepschy, G.(ed.), *Histroy of Linguistics*, vol. I *The Eastern Tradition of Linguistics*,(Eng. trans. 1994) Longman, 1990.

Lepschy, G.(ed.), *Histroy of Linguistics*, vol. II *Classical and Medieval Linguistics*, (Eng. trans. 1994), Longman, 1990.

Robins, R. H.,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Routledge, 2013(4판)(강범모 옮김, 『언어학의 역사』, 한국문화사, 2007)

Rubin, A., “The subgrouping of the semitic languages,”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2:1 (2008), 61-84.

Swiggers, P., “Les dictionnaires de terminologie linguistique : bibliographie systématique,” *L'Information grammaticale* 40 (1989), 12-15.

Woodard, R. D.(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Cambridge Univ. Press, 2004.

Woodard, R. D.(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Syria-Palestine and Arabia*, Cambridge Univ. Press, 2008.

<초록>

## 성경 고전어 문법용어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김현권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이 논문은 <고전 히브리어, 아랍어, 코이네 헬라이어 문법용어 사전>에 대한 사전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제안하였다. 전문용어사전으로서 이 문법사전이 갖는 몇 가지 특성을 먼저 지적하고, 미시구조와 거시구조의 두 사전구조적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문용어는 지식체계이기 때문에 지식표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거시구조의 측면에서는 표제어의 선별과 표기, 동형어 및 동의어 처리, 분할배열과 재배열에 의한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문제를 논하였다. 미시구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방법과 표상, 어원의 처리, 문법 설명, 용법의 배열과 예문 제시, 의미관계와 개념관계, 참고서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사전은 계통과 구조가 상이한 언어를 대상으로 그 문법용어를 기술한 것이므로 사전의설계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잘 비교하여 그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지적하여 설명하면 학습이나 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Abstract>

## The Macro- and Microstructure of A Dictionary of Grammatical Terms of Biblical Languages

Prof. Hyunkwon Ki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macrostructure and the microstructure of "Dictionary of the grammatical terms in Classical Hebrew, Aramaic and Koine Greek" are analysed and reviewed from the point of the terminological lexicography. And some ideas and corrections are suggested on its linguistic and grammatical descriptions and lexicographical treatments.